

향란어문

제 23 집

사름마다히여수빙니겨날로
安한 키고저홀스르미니
나노소리니君 聲 성하니並 書 성하면
初 총 發 聲 성하니라
나노소리라並 書 성하면
나노소리니君 聲 성하니並 書 성하면
初 총 發 聲 성하니라
나노소리니君 聲 성하니並 書 성하면
初 총 發 聲 성하니라

향간어문

제 23 집

3	권 두 언	· 국문과를 사랑하십니까? / 학생회장 김보미
5	발 간 사	· 정체성을 찾아서 / 편집부장 이희경
7	시	· 아름다운 자유 / 김기은 · 출구, 이어폰 / 전은숙 · 어느, 생명을 옮기는 이들의 하오 / 조수미 · 소시민 / 구미진 · 대중목욕탕 / 전유경 · 아배여! / 어매여! / 정혜정
17	수 필	· 페미니즘과 나 / 김태은 · 꿀 이야기 / 전선영 · 신세대에 대한 斷想 / 권혜진 · 어머니, 준다는 것, 사랑 / 김보미
31	소 설	· 갇힌 소리 / 이한슬
47	회 곡	· 순교자 / 변세연
59	서 평	· 진지한 세상읽기 / 유영소 -이창동의 <하늘등>과 공지영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읽고

·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힘 / 김나영 · 인간 운명의 문학적 성찰 / 이윤경 · 박태원의 심경소설 연구 / 박은희 · 진정한 여성시 모색 / 이현정 · 최수철의 연작장편 「알몸과 육성」(1991) 에 나타난 메타픽션적 글쓰기 / 이계운 · 신화를 찾아서 / 박순희	논 단 67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 최주연	제 언 201
· 광고에 나타난 언어의 문제 / 언어학회	학 회 204 보 고 서
기획글 신세대, 그 새로움을 위하여 작가탐방 '영원한 제국'의 이야기꾼 -작가 이인화 편 국문일기장 끄적거림 4	편 집 부 211 기 획
	행 사 표 260
	위 고 나 서 270

페미니즘과 나

김 태 은('92)

“어허, 여성해방론자로구만.”

대학입학시험 면접시 백발이 고운 노교수께서 웃음을 띠며 하던 말이었다. 그 교수님의 질문은 취미가 무엇이라는 것이었고 나는 ‘독서’라고 대답했었다. 나는 그때 『바지를 입고 싶다』라는 가부장사회에서의 도덕적인 부패와 허구성을 파헤친, 19세의 이탈리아 여대생이 쓴 책을 읽고 있었다. 요즘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지만 그당시 나에게 여성해방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과격하게 느껴졌었다. 아마 ‘여성해방’이라는 말 속에서 티셔츠를 입고 피켓시위를 하는 한 명의 여자들이 연상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 소설에 끌리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온 후 <리셀웨폰3>라는 영화를 보았다. 내가 그 영화에 나오는 활동적인 여형사가 멋있다고 하자 함께 영화를 보았던 친구가 자신은 그런 여자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한 영화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그 영화를 보고 극장 밖을 나서는 여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마치 나와 친구 같이-거기에서 그 여성의 성향을 판별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아마도 그때부터 나에겐 여성주의자의 색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가장 먼저 의식을 깨우치게 한 책은 시몬느 드 보브와르의 『제2의 성』과 마가렛 미드의 『세 부족 사회의 성과 기질』이었다. 방대한 지식을 헉헉대며 훑아가기에 숨가쁘고 뚜렷한 그 무엇인가를 손아귀에 쥐지 못했던 책들이었다. 그 후 <자기만의 방>이라는 연극을 보고 나서야 나의 내부의 웅어리져 있던 그 무엇인가를 알아버렸다. 그것은 나만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수많은 억압의 유형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연극에 열광하는 여성들을 보며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만난 느낌을 받았다.

<자기만의 방>이 계몽적 성격의 연극이었다면 <로젤>은 구체적으로 남자들에 의해, 남성본위의 사고로 인해 망가진 삶을 살게된 한 여자

의 반영이 남성들에게는, <자기만의 방>을 관람한 극소수의 남성들이 전혀 계몽(?)되지 않은 것처럼 로젤이 선택을 잘못했을 뿐 그들이 가해자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은 듯했다.

내가 부딪치는 벽은 이런 남성들만의 고정된 사고가 아니었다. 예측되기를 자처하는 여자들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여자가 학문 등에 열중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차선(次善)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물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이런 말을 듣게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세상은 남자들의 것이고 여자는 선택만 잘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남성들이 정한 ‘정상적인’ 여성의 규정을 받아들이기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거부하면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원리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집 밖에서의 현실을 접고 돌아오면 또 하나의 벽이 존재한다. 소위 페미니즘 서적에 심취한 딸을 반국가적 불온서적이라도 탐독하는 듯이 걱정하고, 그로 인해 딸의 행복이 망쳐지지 않을까 조바심내는 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야 했는가. 21세기를 눈 앞에 둔 시기에 살고 있는 어머니도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 믿고 계시는 듯하다. 여자팔자는 뒤웅박 신세라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그 여자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그 소박한 믿음. 그래서일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강민주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여자들로 하여금 그녀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 단지 남성을 잘못 택했기 때문이라는 환상을 갖게 한, 부드러움의 대명사인 남자 배우를 응징하겠다는 그 주장이.

집안에서 아들에게는 가능하고 딸에게는 ‘딸이니까’ 그럴 수 없는 일 투성이다. 사내에게는 없는 날개라도 달아주려 하고, 계집애에게는 있는 날개도 꺾으려 하기 일쑤이다. 남자이므로 기가 살고 여자이기에 기가 죽어야 하는 현실. 어디에서나 ‘평등’이라는 교묘한 눈속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의식의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가정 밖의 현실은 여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만원버스나 전철 안에서 한 두 번쯤 치한에게 당해보지 않은 여성들은 없을 것이다. 그 치한들이 이 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분을 참으며 들어오는 딸에게 아버지의 표정은 ‘어쩔 수

없지'하며 뿔뿔히 해 한다. 이 나라에서 딸을 키우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체념일까.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상품화 역시 여성들을, 다른 면으로 남성들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꼬리표를 단 영화, 연극, 소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책제목보다 '남성이 쓴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선전문구를 더 크게 단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페미니즘이란 말인가?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누적된 불만을 이용한 상업주의 희생양이라도 된 것일까. 이러한 페미니즘을 여성의 사회진출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직장에 나가 돈도 벌면서 애도 낳아 키우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을 꿈꾸는 남자들도 있다. 또다른 형태의 여성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이 가면서 그 방면의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요즘은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을 읽고 있다. 진 시노라 불린이라는 정신과 여의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 속에서 여성의 원형을 찾아 분석한 심리여성학책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되어질 부분은 여성에게 가장 큰 적은 여성 자신의 여성성 폄하라는 것이다.

그 책에 의하면 나는 여러 여신들 중 아르테미스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르테미스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추진력과 독립심을 갖춘 강한 여성형이다. 아르테미스 기질을 타고난 여성은 본능적으로 아르테미스에게 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중학교 시절 『그리스 로마신화』를 읽고 달과 사냥의 여신이라는 아르테미스에게 홀딱 반해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화로 그리곤 했던 기억이 난다.

집안의 아르테미스는 성격이 까다로운 딸이다.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독재자 기질의 아버지와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강조하는 어머니와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고 한 살 어린 남동생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안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어쩔 수 없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항상 상처입는 것은 나 자신이었던 것 같다.

이 책에서 나는 내 자신의 성향을 반성해보고 자신감도 얻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려한 자신의 성격이 심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비뚤게 파악한 자아의식과 여성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으로부터 상처받도록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결심도 함께 말이다.

남성우월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남녀간의 성비가 깨어질 정도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사회에서는 여성 자신조차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쉽다. 흔히 자신이 당한 대접에 불만을 품고 아들만 낳고 싶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체념으로 선택당하며 자식들에게도 그 인습을 물려줘서 결국 악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여자는 2류 인간이라는 사고와 행동을 청산하고 다음 세대의 딸들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자부할 수 있게 하며 실제로도 아무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녀들의 여성성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키워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서 억압의 사슬을 풀어내야 한다. 사회에서 강요하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으로 스스로의 여성성을 무화시키는 그들에게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로운 만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 그것들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하는 존재들이다. 서로 싸우고 누가 누구의 노예가 되는 관계라면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처럼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게 된다. 각자의 기질에 따라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발현할 수 있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이, 또는 남성해방이, 아울러 인간해방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리라.